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우정¹ · 이명선²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²

Influence of Perceived Health,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Grandparent Caregivers

Joung, Woo Joung¹ · Yi, Myungsun²

¹Graduate School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²College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health, parental stress,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of grandparent caregiver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their life. **Method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was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130 participants taking care of their grandchildren from ten children's daycare centers in Seoul, Korea from August to September, 2013.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Perceived health,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ducation level, age of grandchildren, perceived health,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accounted for 48% of the variance in quality of life. Perceived health,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and the variable that most affected quality of life was perceived health.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health of people taking care of their grandchildren must be promoted while relieving their parental stress with appropriate social support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Key Words: Quality of life, Social support, Caregiver, Health, Aged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생활 수준의 향상과 환경 개선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65세 이상 노

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였던 반면, 2013년에는 12%를 차지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앞으로도 증가되어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 수준으로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3-a).

이렇듯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주요어: 삶의 질, 사회적 지지, 양육자, 건강, 노인

Corresponding author: Joung, Woo Joung

Graduate School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eongon-dong, Jongr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740-8460, Fax: +82-2-740-8837, E-mail: Kimsoft1@snu.ac.kr

Received: Mar 7, 2014 / **Revised:** May 18, 2014 / **Accepted:** May 23,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가운데 또 하나 두드러진 사회적 변화는 맞벌이 가족의 급격한 증가이다. 부부-자녀 중심의 단순 핵가족 증가와 맞물린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가사와 양육의 문제라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이슈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여성에게는 어린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담을 반영하듯 기혼여성의 20.1%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와 자녀 교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고 있고 그 중 29.2%가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3-b). 이에 따라 향후 늘려야 할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복지서비스에 맞벌이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가 쏠리고 있다(Statistics Korea, 2009). 현재 우리나라 35.1%의 맞벌이 가족이 육아에 있어 그들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로 조부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양육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일반적인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생활만족도, 안녕, 복지 등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이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인성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Kim, 2004) 더 나아가 가족 전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비양육 조부모를 비교한 Cheo (2011)의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 조모가 우울 지수가 더 높고 자녀와의 갈등도 많았지만 지각된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국외 연구에서도 양육이 조부모의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낳지 않는다고 보고 하고 있다(Lo & Liu, 2009). 반면에 자녀 양육을 마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에 조부모로서 다시 양육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신체적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와 맞물림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eder, Grinstead, & Torres, 2007). 이와 같이 상반된 연구결과는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며, 특히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삶의 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성공적이고 편안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

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손자녀 양육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Kelley, Whitley, & Campos, 2010). 이는 생존율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서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Choi, Park, Kim, & Chang, 2004). 특히 주관적인 건강 상태 평가는 객관적 건강 평가에서 놓칠 수 있는 미묘한 생물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건강상태와는 독립적으로 사망률의 예측 요인이 될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Mossey & Shapiro, 1982).

양육 스트레스도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Musil, Gordon, Warner, Zauszniewski, Standing과 Wykle (2011)에 의하면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들은 그렇지 않은 조모에 비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인 자녀와의 갈등을 겪고 있을 경우 양육 스트레스는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onway, Boeckel, Shuster, & Wages, 2010).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는 조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der et al., 2007). 반면에 Taylor, Washington, Artinian과 Lichtenberg (2007)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은 양육을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으며 다만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수가 많고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Gerard, Landry-Meyer, & Roe, 200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조모들의 경우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부담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2000).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 기능상태 및 건강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양육하는 다른 조부모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서적인 지지 또한 상당한 위안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Leder et al., 2007).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는 조부모들의 삶의 질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각된 건강,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이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영역을 모두 고려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파악함으로써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삶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삶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삶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임의로 선정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 집 10곳과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편의 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손자녀와의 동거 여부나 양육 기간에 관계없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조사에 응답이 가능한 노인으로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에 의거하여 양측검정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1- β)=.9, 회귀분석에서 중간 효과크기인 .15, 투입되는 독립 변수 5개를 고려했을 때 116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표본 수는 128명을 목표로 하였다. 총 142명이 참여하여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나, 답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12부를 제외한 총 130 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삶의 질

삶의 질은 Stoker, Dunbar와 Beaumont (1992)가 개발한 삶의 질 척도(Smithkline Beecham's Quality of life' Scale)를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Yoon, Kook,

& Lee, 1998). 이 도구는 정신적 안녕 5문항, 신체적 안녕 5문항, 기분 3문항, 사회적 관계 3문항, 일/직업 2문항, 활동/흥미/취미 1문항, 재정 1문항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느끼는 지, 의사 결정의 어려움이 있는지, 무력감을 느끼는지에 관해 묻는 내외 통제 3문항으로 총 8개 하부 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양극단이 대비되는 문장으로 원 도구의 경우 1점에서 10점까지 계수화된 척도로 되어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개발 당시 $\alpha = .89$ 였고 저자로부터 도구 사용허가 및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할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 = .82$ 였다.

2) 지각된 건강상태

지각된 건강상태는 시각상사척도로 측정하였는데, 0점인 '매우 나쁨'을 왼쪽 끝으로, 10점인 '매우 좋음'을 오른쪽 끝으로 하는 직선 형태의 100 mm 선으로, 대상자에게 이 선상에 본인이 느끼는 감정, 감각, 태도의 정도를 표시하게 한 후 왼쪽에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 도구는 통증, 감정, 불안, 수면의 질 및 임상 증상의 심각도 등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귀하는 현재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점부터 10점까지 눈금선 위에 표기된 숫자에 표기를 하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3)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18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진 Parental Stress Scale (PSS)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양육자의 성별이나 양육대상자의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로서 개발 당시 신뢰도는 $\alpha = .83$ 이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타당도가 입증되었다(Berry & Jones, 1995). 개발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후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간호학 분야 전문가 3인을 통하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로 용어를 수정하고 의미상 수정을 요하는 일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 = .88$ 이었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 (1985)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사랑과 친밀감에 관한 정서적 지지 7문항, 경제적 및 실질적 도움 제공에 관한 물질적 지지

6문항, 조언 및 충고 제공 등에 관한 정보적 지지 6문항과 주변 사람들이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지, 내 존재와 일에 대한 인정과 인격적 대우를 해주는 지,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지에 관해 대상자가 느끼는 정도를 묻는 평가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개발 당시 신뢰도는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 = .97$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 보조자 2명에 의하여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었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 집 10 군데와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142명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응하거나 스스로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한 뒤 답을 기록하여 수집하였다. 총 142명이 참여하여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나, 답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12부를 제외한 130 명이 응답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일개 대학의 연구대상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2013-57)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설문 내용의 비밀 유지 및 익명성,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를 받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그 다음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계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하고, 삶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의 정도는 t-test/ANOVA로 분석하였다.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

대상자는 총 130명으로 이 중에서 여자가 81.5%로 대부분이었다(Table 1). 연령별 분포는 60~69세가 59.2%로 가장 많았고 70~79세가 22.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교육은 중졸 이하 27.7%, 고졸 이하 40.0%, 대졸 및 대학원졸 32.3%였다. 종교는 기독교 28.5%, 천주교 27.7%, 불교 22.3%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0.8%였고, 양육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54.6%였다. 양육 전 건강이 나빴던 경우 2.3%, 보통 62.3%, 좋았던 경우 35.4%였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은 질환 없음이 14.6%, 한 개 질환이 43.1%, 두 개 질환이 31.5%, 세 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10.8%였다. 친손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43.1%, 외손자녀인 경우 51.5%, 그리고 둘 다 돌보는 경우가 5.4%였다. 돌보는 손자녀 수는 한 명을 돌보는 경우가 62.3%로 가장 많았고, 두 명을 돌보는 경우 34.6%, 세 명을 돌보는 경우가 3.1%였다. 손자녀 연령대는 영아기 18.5%, 유아기 40.0%, 학령전기 22.3%, 학령기 19.2%로 만 2세에서 3세에 해당하는 유아기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당 양육 시간은 평균 48시간으로, 주당 하루 이하 양육이 24.6%, 이틀 이하 양육이 41.6%, 사흘 이하 양육이 19.2%, 사흘 이상 양육이 14.6%였다. 손자녀 모의 취업 상태는 전일제 직장 74.6%, 비전일제 직장 13.9%, 학업 3.8%, 기타 7.7%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부모의 교육 정도($F=4.15, p=.018$)와 양육 전 건강상태($F=11.81, p<.001$),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연령대($F=4.46, p=.0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교육 정도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전 건강상태에 관한 사후 분석 결과 양육 전 건강상태가 보통이었던 경우가 나빴던 경우와 좋았던 경우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연령대에 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만 4세에서 6세를 양육하는 조부모보다 만 2세에서 3세까지의 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Gender	Male	24 (18.5)	77.75±12.30	0.62	.535
	Female	106 (81.5)	76.25±10.32		
Age (year)		130 (100)	64.85±5.90	1.15	.321
	50~59	24 (18.5)	77.83±10.87		
	60~69	77 (59.2)	77.09±10.95		
	70~79	29 (22.3)	73.93±9.70		
Education	≤ Middle school ^a	36 (27.7)	74.58±10.50	4.15	.018 (b < c) †
	≤ High school ^b	52 (40.0)	74.79±9.43		
	≥ College/University ^c	42 (32.3)	80.33±11.49		
Religion	Catholic	36 (27.7)	77.31±12.05	0.60	.619
	Protestant	37 (28.5)	77.59±9.15		
	Buddism	29 (22.3)	76.34±10.70		
	Others	28 (21.5)	74.29±10.89		
Marital status	Married	92 (70.8)	76.65±10.84	0.21	.831
	Single or others	38 (29.2)	76.21±10.40		
Payment for assistance	Yes	71 (54.6)	76.23±9.63	-0.35	.729
	No	59 (45.4)	76.88±11.89		
Health status prior to caregiving	Bad ^a	3 (2.3)	93.00±8.72	11.81	< .001 (b < a, c) †
	Average ^b	81 (62.3)	73.57±9.05		
	Good ^c	46 (35.4)	80.65±11.25		
Number of disease	None	19 (14.6)	80.68±10.47	1.91	.132
	One	56 (43.1)	76.54±10.11		
	Two	41 (31.5)	76.17±11.37		
	More than three	14 (10.8)	71.86±10.01		
Relationship with grandchildren	Son's child (ren)	56 (43.1)	75.80±10.20	0.30	.744
	Daughter's child (ren)	67 (51.5)	76.91±10.97		
	Both	7 (5.4)	78.57±12.79		
Number of grandchildren	1	81 (62.3)	77.58±10.24	1.30	.277
	2	45 (34.6)	75.09±11.49		
	3	4 (3.1)	71.25±8.42		
Age of grandchildren	Infant (0~1) ^a	24 (18.5)	74.71±9.90	4.46	.005 (b > c) †
	Toddler (2~3) ^b	52 (40.0)	80.52±10.64		
	Preschooler (4~6) ^c	29 (22.3)	73.34±8.69		
	Schooler (≥ 7) ^d	25 (19.2)	73.64±11.45		
Time of care (hour/week)			48.08±39.76	0.99	.040
	1~24	32 (24.6)	74.13±10.30		
	25~48	54 (41.6)	77.00±11.96		
	49~72	25 (19.2)	78.88±7.09		
	≥ 73	19 (14.6)	76.11±11.27		
Mother's work status	Full time job	97 (74.6)	76.68±10.88	0.29	.835
	Part time job	18 (13.9)	74.67±8.14		
	In school	5 (3.8)	76.40±11.97		
	Others	10 (7.7)	78.40±13.12		

† Scheffé test.

2.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정도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에 평균 5.75점이었고 양육 스트레스는 90점 만점에 평균 44.93점, 사회적 지지는 125점 만점에 평균 92.64점, 삶의 질은 115점 만점에 평균 76.52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하부 영역으로 정신적 안녕감 25점 만점에 평균 17.83점, 신체적 안녕감 25점 만점에 평균 15.68점, 기본 15점 만점에 평균 10.28점, 내외 통제 15점 만점에 평균 9.36점, 사회적 관계 15점 만점에 평균 10.46점, 일/직업 10점 만점에 평균 6.58점, 활동/흥미/취미 5점 만점에 3.25점, 재정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상관관계

대상자의 삶의 질은 지각된 건강상태($r = .58, p < .001$), 사회적 지지($r = .48,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양육 스트레스($r = -.50, p < .0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r = -.50, p < .001$), 그리고 양육 스트레스와 지각된 건강상태는($r = -.40, p < .001$)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건강상태는($r = .39, p < .001$)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4.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확인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일반적 특성 중에서 삶의 질에 차이를 보인 교육 정도, 양육 전 건강 및 양육 중인 손자

Table 2. Perceived Health,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N=130)

Variables	M±SD	Possible range
Perceived health	5.75±2.02	0~10
Parenting stress	44.93±8.84	18~90
Social support	92.64±13.22	25~125
Emotional	26.08±3.66	7~35
Informational	22.08±3.37	6~30
Financial	21.88±3.48	6~30
Evaluational	22.59±3.38	6~30
Quality of life	76.52±10.68	23~115
Psychic well-being	17.83±3.06	5~25
Physical well-being	15.68±2.97	5~25
Mood	10.28±1.79	3~15
Locus of control	9.36±1.74	3~15
Social relationships	10.46±1.74	3~15
Work/employment	6.58±1.46	3~15
Activities and interests	3.25±0.92	1~5
Finance	3.07±0.88	1~5

Table 3. Correlation among Quality of Life, Perceived Health,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N=130)

Variables	QoL	Psychic	Physical	Mood	Control	Social	Work	Activity	Finance	PH	PS	SS
	r	r	r	r	r	r	r	r	r	r	r	r
QoL	1											
Psychic	.85**	1										
Physical	.80**	.59**	1									
Mood	.77**	.62**	.58**	1								
Control	.75**	.58**	.50**	.54**	1							
Social	.67**	.46**	.45**	.40**	.44**	1						
Work	.68**	.53**	.41**	.51**	.44**	.44**	1					
Activity	.42**	.33**	.24**	.18*	.26**	.30**	.29**	1				
Finance	.50**	.34**	.35**	.33**	.39**	.32**	.29**	.15	1			
PH	.58**	.49**	.60**	.39**	.34**	.35**	.33**	.23**	.32**	1		
PS	-.50**	-.52**	-.39**	-.35**	-.29**	-.27**	-.42*	-.22*	-.14	-.40**	1	
SS	.48**	.44**	.32**	.32**	.33**	.40**	.33**	.33**	.27**	.39**	-.50**	1

QoL=quality of life; PH=perceived health; PS=parental stress; SS=social support.

논 의

녀 연령대가 범주형 변수였으므로 회귀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가변수화 하였다.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독립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는 0.8 미만이었으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 정도를 진단하는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을 분석한 결과 양육 전 건강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인 10 이상으로 나와 제외하였다. 회귀 분석에 최종 포함 된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교육 정도와 손자녀 연령대의 분산팽창인자는 1.58에서 1.97로 다중공선성 판단 기준인 10.0 이하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0.51에서 0.72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오차의 자기 상관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2.089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잔차 분석 결과 삶의 질에 대한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점도도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중회귀분석 시행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F=15.65, p<.001$)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8%(수정된 $R^2=.48$)였다.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beta=.40, p<.001$)였고, 그 다음이 사회적 지지($\beta=.21, p=.009$), 양육 스트레스($\beta=-.20, p=.0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교육 정도와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연령대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본 연구는 손자녀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은 115점 만점에 76.52 ± 10.68 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6.53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조부모의 교육 정도, 양육 전 건강상태와 돌보는 손자녀의 연령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나타났다. 조부모의 교육 정도에 있어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대졸 이상 학력인 조부모의 삶의 질이 고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졸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 조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선행연구(Cooney & An, 2006)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양육 전 건강상태 또한 대상자의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양육 전 건강이 '보통이었다'고 대답한 군의 삶의 질이 '나빴다' 혹은 '좋았다'로 대답한 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을 맡은 조부모 스스로 혹은 양육 의뢰자가 조부모의 양육 전 건강 상태에 따라 양육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고자 노력할 결과일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 연령에 따라 삶의 질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만 2세에서 3세까지의 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삶의 질이 만 4세에서 6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보다 유의

Table 4.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N=130)

Variables	B	SE	Std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59.16	8.73		6.78	<.001		
Perceived health	2.09	0.40	.40	5.30	<.001	.72	1.38
Parental stress	-0.24	0.09	-.20	-2.54	.012	.68	1.47
Social support	0.17	0.06	.21	2.67	.009	.69	1.44
Education [†]							
≤ High school	-1.72	1.74	-.08	-0.99	.324	.63	1.58
≥ College/university	1.35	1.87	.06	0.72	.472	.60	1.66
Age of grandchildren [‡]							
Toddler (2~3)	3.36	1.94	.16	1.73	.087	.51	1.97
Preschooler (4~6)	-0.15	2.17	-.01	-0.07	.947	.56	1.77
Schooler (≥7)	-1.93	2.30	-.07	-0.84	.401	.56	1.78

$R^2=.51$, Adjusted $R^2=.48$, $F=15.65$, $p<.001$, Durbin-Watson=2.09

[†] Education (00: ≤ middle school, 10: ≤ high school, 01: ≥ college/university); [‡] Age of grandchildren (000: infant, 100: toddler, 010: preschooler, 001: schooler)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는 더 힘들 수 있지만 Kwon (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학업이 강조되어 유아기부터 특기 교육을 시키는 등 조기 교육이 활성화 된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기를 준비해야 하는 만 4세에서 6세의 양육에 교육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돌보는 손자녀 수,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Oh (2006)의 연구와 유사하지만, 돌보는 손자녀의 수와 돌보는 시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인 Taylor 등(2007)의 연구와는 상이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지각된 건강은 10점 만점에 5.75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15점 만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한 Cheo (2011)의 점수를 백 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해 본 결과 각각 57.5점과 57.3점으로 유사한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단순한 노화로 인한 노쇠뿐만 아니라 양육으로 인한 건강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간호학적 건강 증진 중재를 통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손자녀 양육을 맡은 조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90점 만점에 평균 44.93점이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한 Oh (2006)의 연구에서는 175점 만점에 평균 79.80점이었다. 이 두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한 결과 각각 49.92점, 45.60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가 약간 높긴 하였지만 두 연구 모두 중간 정도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사회적 지지는 125점 만점에서 92.64점으로 백점으로 환산한 결과 74.11점이었다. 이는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Kwon (2000)의 연구에서 나온 76.6점과 유사한 점수이다. 하부 영역에서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그리고 평가적 지지의 네 개 영역 가운데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고 정보적 지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네 가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지각된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스로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지지도

삶의 질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반면, 양육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Oh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중간 크기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r=.39$), 이러한 결과는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건강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Shin & Sok,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양육 스트레스와($r=-.50$) 부정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손자녀 양육을 맡은 조부모와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조부모의 양육 부담감이 높아진다는(Conway et al., 2010)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건강상태,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48%였다. 이 중에서 지각된 건강상태($\beta=.40, p<.001$)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육체적 피로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Leder et al.,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 양육을 하지 않는 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2007)의 연구에서 건강 지각 보다 우울이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돌봄 활동이 늘어나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에게는 정서상태보다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삶의 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인 노화가 진행되는 노년기에 양육을 맡게 되는 조부모들에게 있어 건강은 단연코 중요한 문제이며 성공적인 양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건강이 중요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려되며 특히 노인에게 있어 사망률, 생존률과도 관계가 깊은 지각된 건강(Mossey & Shapiro, 1982)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설명력이 높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의 지각된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학적 중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 스트레스($\beta=-.20, p=.012$)도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조부모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이 나쁘다는 일부 선행연구(Musil et al., 2011; Leder et al., 2007)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면서 나타나는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정기적으로 사정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간호학적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손자녀 양육이 예상되거나

희망하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발달과정이나 스트레스 완화법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전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중재를 통하여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성공적인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훌륭한 손자녀양육을 이루어냄으로써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 또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 변수($\beta = .21, p = .0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 부담에 대한 질적 연구(Kim, 2007)에서도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 친구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비롯하여 사회적 격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여줌으로써 이들이 느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Kwon, 2000). 구체적으로는 노년기에 양육을 맡게 될 대상자들을 위해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지 체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성인 자녀와의 대화 및 가족 관계 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들의 연락망 구축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중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의 IT 기기 등을 활용하여 육아 정보를 교환할 뿐 아니라 친밀한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배려로 일정한 간격으로 사회적 격리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회활동을 적극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임의 표본추출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적이다.

결론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삶의 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신체, 심리,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각된 건강상태가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사정하고 이에 따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며,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다각적인 중재를 통하여 손자녀 양육 조부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궁

극적으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뿐만 아니라 손자녀 세대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추후에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 심리, 사회적 영역을 통합한 효과적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erry, J. O., & Jones, W. H. (1995). The Parental Stress Scale: Initial psychometric evid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3), 463-472.
- Cheo, H. J. (2011). *The comparison of grandmothers' subjective health status, depression, quality of life and conflict with their children depending on whether raising grandchildren or no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Choi, Y. J., Park, Y. S., Kim, C., & Chang, Y. K. (2004). Evaluation of functional ability and nutritional risk according to Self-Rated Health (SRH) of the elderly in Seoul and Kyunggi-do. *The Korean Journal Nutrition, 37*(3), 223-235.
- Conway, P., Boeckel, J., Shuster, L., & Wages, J. (2010). Grandparent caregivers' use of resources and services, level of burden, and factors that mediate their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8*(2), 128-144.
- Cooney, T. M., & An, J. S. (2006). Women in the middle: Generational position and grandmothers' adjustment to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Women & Aging, 18*(2), 3-24.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Gerard, J. M., Landry-Meyer, L., & Roe, J. G. (2006).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coping with caregiving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62*(4), 359-383.
- Kelley, S. J., Whitley, D. M., & Campos, P. E. (2010). Grandmothers raising grandchildren: Results of an intervention to improve health outcom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2*(4), 379-386.
- Kim, C. G., & Park, H. J. (2007).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senior welfare center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9*(4), 535-546.
- Kim, H. S. (2004). A study of the influence of grandparent's attitude to bring up, care stress on grandchildren's adjustment in grandparent-grandchildren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8*, 85-117.
- Kim, M. J. (2007). A study of the caregiving burden on grandmothers who raise their grandchildren: A phenomenologi-

- cal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915.
- Kwon, I.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and the social support of grandmothers caring their grand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6(2), 212-223.
- Kwon, J. Y. (2007). Parents' perception of very earl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1-19.
- Leder, S., Grinstead, L. N., & Torres, E. (2007).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stressors, social support, and health outcomes. *Journal of Family Nursing*, 13(3), 333-352.
- Lo, M., & Liu, Y. H. (2009). Quality of life among older grandparent caregivers: a pilot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7), 1475-1484.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2, May). *Korea's National Survey on Childcare 2012*. Retrieved March 5, 2014 from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Web site: http://www.mw.go.kr/front_new/sch/index.jsp?coll
- Mossey, J. M., & Shapiro, E. (1982). Self-rated health: A predictor of mortality among the elderl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2(8), 800-808.
- Musil, C. M., Gordon, N. L., Warner, C. B., Zauszniewski, J. A., Standing, T., & Wykle, M. (2011). Grandmothers and caregiving to grandchildren: Continuity, change, and outcomes over 24 months. *Gerontologist*, 51(1), 86-100.
- Oh, J. N. (2006). Care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grandmothers caring for their grandchildren in employment mother's hom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2(3), 368-376.
-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hin, S. H., & Sok, S. R. (2012). A comparis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between Korean older people living with family and living alon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9(2), 252-258.
- Statistics Korea. (2009, November). *Report on the social survey 2009*. Retrieved March 5, 2014, from the Statistics of Korea Web sit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177458
- Statistics Korea. (2013-a, November). *Statistics of women's career breaks in 2013*. Retrieved March 5, 2014 from the Statistics Korea Web site: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board?bmode=read&aSeq=310385
- Statistics Korea. (2013-b, September). *2013 Statistics on the Aged*. Retrieved March 5, 2014 from the Statistics Korea Web site: <http://kostat.go.kr/portal/english/news/1/2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0984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Stoker, M. J., Dunbar, G. C., & Beaumont, G. (1992). The Smith-Kline Beecham 'quality of life' scale: A validation and reliability study in patients with affective disorder. *Quality of Life Research*, 1(6), 385-395.
- Taylor, J. Y., Washington, O. G., Artinian, N. T., & Lichtenberg, P. (2007). Urban hypertensive African American grandparents: Stress, health, and implications of child care. *Clinical Gerontology*, 30(4), 39-54.
- Yoon, J. S., Kook, S. H., & Lee, M. S. (1998). A preliminary study on Korean version of the SmithKline Beecham 'quality of life' Scale (KvSBQOL).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7(2), 280-294.